

연구 후 소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활동을 정리하며

조법중(趙法鍾)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제1분과 위원으로서 지난 2년 6개월의 활동은 ‘한일 역사학계의 쟁점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활동’으로서 뜻 깊고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한일 양국 학계에서 기존에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행되었던 학술 회의와 연구 작업이 특정주제에 대한 집중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진행되거나 분야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를 심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존 단속적인 연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제2기 공동위원회 제1분과에서는 한일 간 선사 및 고대사에 나타난 관계사에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연구와 학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양국 학계의 공통 인식과 차이를 파악하고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며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자국사 중심의 역사 이해와 논리를 근거로 대중적 역사이해를 추진하고 있는 현상은 쉽게 극복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학술 논의와 역사 현장 확인을 통한 연구의 심화 및 공유를 통해 상호 간극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 역사학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향후 한일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선사 및 고대 초기 양국 교류사에서 문헌사적 이해와 함께 선사시대 이래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양국 고고학계의 연

구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헌사학과와 공유하고 대중적인 이해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의 개설서 및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청동기 철기문화, 및 농경문화와 일본의 야요이 문화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일본측의 언급은 선사시기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 소개가 생략되거나 개괄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고대사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된 한일 교류 양상을 체계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이 같은 고고학분야의 보다 전문화된 연구논의와 소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 학계의 연구 성과가 대중적 역사교육 현장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양국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교과서 및 관련서적들에 대한 보완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보다 발전된 연구 활동은 한일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성과물로서 한일 양국 역사학계의 소통과 이해뿐만 아니라 양국의 발전 및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구성의 디딤돌로서 큰 의미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고대사분과 위원 분들의 깊은 연구와 학문적 성과는 본인에게 많은 자극과 공부가 되어 향후 저 자신의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공동연구를 끝내고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공동연구를 끝내고’ 무언가 소감을 말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본래 업무에 본 위원회 일이 더해져서 실로 多忙했다. 2개월에 1번의 빈도로 연구회를 진행했는데, 그것은 금방 다가왔다.

더욱이 일한의 역사, 게다가 관계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根底에 서로 접근할 수 없는 폭넓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관계사의 이해는 각각의 국가와 문화의 인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각기 彼我에 관계사의 논리가 있는 것이 설명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논의하는 가운데 문화 마찰을 느낀 경우가 여러 차례였다. 관계사에 대해서 그 역사인식을 관련된 두 나라 간에 공통으로 갖는 것의 요원함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떠한 강제력이 작용해서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개인의 주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행복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런데 일한의 관계사 연구의 대상은 제1·2기를 통틀어서 국가의 관계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도 생긴다. 일한 공동이라는 틀에서 생겨난 마이너스적인 면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 자유롭게 대상을 풍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 가운데에서 ‘고대의 일한관계는 어떻게 탄생했나’ 또 ‘고대 한 국사회의 고유한 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탄생하고, 擴延했나’에 대해서 고찰해 나가는 약간의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공동연구회를 마치고, 이 기간의 조사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본 보고 논문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다.

화제를 바꿔 말하면, 이 기간 동안 한류 붐은 더 일어났다. 이 붐은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경주나 부여를 가보면, 일본에서 온 고령의 여행자들을 자주 만난다.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유적을 방문한 후에는 서울로 향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소용돌이를 체험하는 것 같다. 30년 동안 한국사 연구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해 왔던 나는 한국의 격변과 訪韓者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한국의 변치 않는 부분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도쿄 시내의 야마노테선(山手線)을 타면 한국에서 온 남녀 학생을 자주 본다. 전국적으로도 관광과 교통안내에는 한글 표기가 되어 있다. 일한 간의 사람들의 왕래는 사상 최고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역사의 상호인식이 적절한 가치를 가지고 활용되도록 한사람의 한국고대사 연구자로서 미미한 능력이나마 임무를 다하고 싶다.

공동연구 말미의 단상

김태식(金泰植)

대다수 구성원이 바뀐 제2기의 1분과 연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시기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남짓한 연구 기간이 끝나서 이를回顧한다고 하니 세월의 빠름을 탓하게 된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4~6세기는 韓半島 및 日本列島에 포진한 여러 세력들의 王權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發展期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현상도 나타나지만, 地理的 位置와 歷史的 背景 및 社會的 成長度 또는 현존하는 編纂書의 敘述內容에 따른 차이도 看取된다.

한일 양 지역의 고대 왕권 성장을 연구하면서, 新羅와 大和의 발전 과정과 수준에 유사한 점이 많고 加耶와 九州의 운명에도 공통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피상적인 느낌만 지적한다면, 5세기에 신라와 야마토가 자기 지역에서 배타적인 왕권을 확립시키고, 6세기에는 기존의 교역 선도 세력이었던 가야와 九州 지역이 몰락하고, 7세기에 신라와 야마토가 전국적인 왕권을 재구성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에 비하여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 또는 경쟁하면서 선진적으로 발전하여 1~3세기에 고대국가를 성립시키고, 4세기에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신라·가야 및 일본열도의 諸般 勢力에 비하여 압도적인 先進性을 구현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2強은 4~6세기에 걸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였고, 신라와 가야의 2弱은 형세에 따라 그들의 인도를 받았다. 왜는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적으로 친숙한 가야 또는 백제가 이끄는 쪽으로 유도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사국 분립상태의 果實을 취하였다.

고대 일본열도의 왕권 성장 과정은, 그곳이 한반도와 달리 지리적으로 바다에 의하여 격절되어 있고 중국과의 관련이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별도의 왕권이 성장하여 그들 사이의 재통합 과정을 겪지 않고, 성장이 불충분하더라도 일찍부터 전국적인 왕권이 성립하여 그것이

일본열도를 대표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일본적인 특성이다.

이제 앞으로의 고대 한일관계사는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교류의 성격 및 왕권 성장 과정 비교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所期の 成果를 이루지 못하였다. ‘任那問題를 包含하여’라는 副題를 붙인 것은 그와 같은 본질에 미치지 못한 미진한 연구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번 공동 연구의 기본 목적을 勘案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적어도 2개월에 1번씩 만나 합동분과회의 17회를 진행하면서, 1분과의 한일 연구위원들 사이에 그에 상응하여 친분이 쌓인 점은 바람직하였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공식적인 만남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를 깊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일본측 위원들의 연구 능력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연구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의 공동 연구는 제1기에 비하여 분과 및 연구자 개인들의 所信 있는 표현이 全體의 要求라는 이름 아래 다분히 억제당한 느낌이 든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제2기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연구를 마친 소감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이번 일한역사공동연구에서는 나는 <고대왕권의 성장과 일한관계> 중의 제2장 ‘5세기의 일한관계’와 제3장 ‘6세기의 일한관계’,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일한관계> 중에서 제1장 ‘7세기의 일한관계’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예를 들어 5·6세기의 일한관계에서 중심과제가 되는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양국의 기본적 이해의 기반은 형성되어 왔다고 여겨지지만, 세부적으로는 양국 각각의 國史의 시점에서 유래하는 차이도 존재한다. 다른 논점에 관해서도 앞으로 더욱 사료 해석의 대조를 해 나가면서, 整合的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시대들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의 전방후원분, 가야 제국의 발굴, 6세기의 백제의 王都나 弥勒寺·王興寺 등의 사원 등, 특히 한국측의 최근 몇 년의 고고학적 견식의 증가는 새로운 고찰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출토 문자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7세기 목간이 다수 검출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숫자는 적기는 하나, 6세기의 백제·신라목간이 출토되고 있어, 고대 왕권의 확립에 관한 통치제도나 사무 운영의 방법 등의 계승 유무를 밝혀내는 것이 기대된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자료와 사료를 실제로 보고 유적을 견학할 수 있어, 고고학적 식견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은 해당 시기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익했다. 양국의 문헌사학의 연구 성과들, 이러한 고대 사학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 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번역체제의 확립도 앞으로의 연구 환경 정비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지로부터 가야계 토기와 한국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해당 시기의 일한관계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라는 관점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개인적인 과제로서는 일한 고대사연구에는 한문 사료라는 공통 소재가 있지만, 역시 서로의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언어의 문제가 크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도 몇 번 한글 공부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晩學’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더 어려워졌

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익히지 못하고 끝난 것이 유감이다. 통역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한국측 위원 세 분의 선생님들과 각지에서 신세를 진 여러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체험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것을 앞으로의 국제적 공동연구와 국제교류에서도 활용해 가고 싶다.

공동연구를 마치고

노태돈(盧泰敦)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 제2기의 終了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感懷로선 먼저 安堵感이다. 자유로운 한 個人으로서 韓日 간의 共同研究에 參與한다는 것과는 달리, 양국을 대표하는 公式的인 機構의 委員으로 活動한다는 事實이 주는 壓迫感이 일정하게 作用하는 가운데서, 第2期 委員會가 出帆한 뒤 곧바로 부딪친 事案이 研究 主題 選定을 둘러싼 마찰이었다. 4개 분과로 구성된 委員會는 制限된 人力으로 2년이란 期間 동안 作業하여야 하는 限時的인 機構였다. 이런 客觀的인 條件 하에서,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研究 主題와 그 論及의 範圍에 관한 論難이 오래 동안 전개되었다. 과연 委員會의 事業이 제대로 遂行될 수 있을까 라는 懷疑가 간간히 들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第1分科에선 큰 어려움 없이 공동연구 주제의 設定이 비교적 일찍 合意되었고, 이제 그 結果物을 提出할 수 있게 되었다. 古代史 分科에 속한 양측 委員들 간의 相互 信賴와 尊重이 이를 가능케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 다음 느끼는 것은 아쉬움이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간 내에 作業을 무사히 마쳤지만, 賦課된 業務를 충실히 遂行하였는가라고 자신에게 反問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는 韓日 양국의 史學界에서 理解의 差異가 큰 問題를 研究 主題로 하였다. 그에 따라 共同研究 또한 양측 學界의 既存 研究成果를 되살피 意見의 差異를 좁혀나가는 形態가 되었고, 자연 主題 設定과 研究 進行에서 政治史가 中心이 되었다. 앞으로는 社會史와 文化史로 그 研究範圍를 擴大해야 하겠고, 學界의 既存 歷史認識의 틀을 넘어서 이를 先導할 수 있는 視覺의 提示가 必要한 바이다. 東北亞細亞 地域史라는 觀點을 적극 考慮한, 韓日 共同의 古代史 體系 樹立 方向의 摸索도 그 한 例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다시 이런 共同研究의 機會가 마련된다면, 이번 제2기의 經驗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方向이 摸索될 수 있기를 期待해 본다.

지난 2년 동안 나로서는 많은 것을 얻었다. 특히 양국을 오가며 행한 遺蹟 踏査는 印象的이었다. 남으로는 오키나와에서 북으로는 센다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여러 지역의

遺蹟과 風土를 직접 살피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幸運이었다. 이는 그 간 문자를 통해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런 생생한 體驗은 일본의 歷史와 文化를 理解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機會를 자라나는 韓日 兩國의 젊은 史學徒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方案의 摸索이 양국 歷史學界의 相互 理解 增進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切感하였다.

공동연구를 마치고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소감은 대체로 좌담회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보충하는 내용을 쓰기로 하겠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개별 주제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한 양국에 있어서의 고대교류사 연구의 현 단계에 대해서 過不足 없이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이번 같은 주제 결정 방식을 택한 이상,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가 결정되고 나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원이 결정되고 나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택했고, 게다가 공동연구라는 명목을 내세운 이상, 공통 주제를 세워야 한다면, 연구사의 축적이 보통이 아닌 이상, 주제가 결정되고 나서 2년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연구로 연구사에 획을 그을 만한 논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주제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어지간히 운이 좋지 않으면 우선은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택한 방법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물론 연구의 현 단계를 정리한다고 해도 포함시킬 수 없었던 분야는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첫 번째는 渡來人の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대구분과 그 表象의 문제다. 둘 다 이후의 과제로 될 것이다.

이번의 연구 기간 동안 일본의 수상은 네 번째가 되었고, 한국의 대통령도 바뀌어 일한 양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기묘한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2기 위원회 제1분과가 우선은 순조롭게 직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위원장, 간사 등 여러 선생님들 및 지원 조직의 노력에 의한 것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아카데미즘의 성숙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木簡의 출토 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한국 목간학회의 창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고학적 분야뿐만 아니라 문헌사학의 방면에 있어서도 일한의 학술적인 교류가

일상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조류는 이후 점점 왕성해질 것이고, 통일 신라기의 문자 자료가 좀 더 늘어나면, 일한 고대국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한 날을 머지않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